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 세종에 국민이 있다

보도시점 2023. 9. 22.(금) 10:30 배포 2023. 9. 22.(금)

산업부 장관, 방한 미국 상무부 부장관과 한미 간 미래지향적 경제·통상협력 논의

- 첨단산업·공급망·무역기술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방안 논의
-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 통상현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방문규 장관은 9. 22.(금) 방한 중인 미국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Don Graves) 부장관을 접견하여, 한미 간 경제·통상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수출통제 등 주요 통상현안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로, 그간 산업부와 한미 간 경제·통상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왔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이번이 첫 번째 방한(9. 20.~23.)이며, 산업부 장관 예방 및 통상교섭본부장 면담을 통해 양국 간 첨단산업·공급망·무역기술안보 분야 및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방 장관은 한미 관계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8월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첨단산업·기술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한국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 간에도 기존 장관급 공급망·산업 대화(SCCD)에 더하여, 지난 8월 한미일 산업 장관회의가 신설되어 보다 제도화된 협력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방 장관은 한·미 간에 첨단산업·공급망의 핵심인 반도체산업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반도체 수출통제, 가드레일 규정 등 현안도 원만히 해결되도록 상무부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하여 그간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온 점을 평가하고, 남은 쟁점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9. 21.(목) 그레이브스 부장관과 별도 면담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수출통제, 철강 수입규제 등 관련된 모든(제반)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양측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안홍상 (044-203-5650)
		담당자	사무관	김윤희 (044-203-5651)
			사무관	권태성 (044-203-5657)
			사무관	오인봉 (044-203-565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